

기고

진 민 호 화순 119안전센터 소방장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

전통시장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쇼핑 공간이다. 알뜰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통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하지만 최근 전통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해 화재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청 '전국 전통시장 소화설비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자료에 따르면 소화기 약 57%와 스프링클러 약 11%의 설치상태가 양호하지 않거나 미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동화산소화장치의 경우에는 무려 약 82%가 불량하거나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LPG 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이상 유무를 점검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기시설을 합부로 설치하

기와 콘센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더욱이 누전차단기를 일부러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소방도로 역시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등 화재에 취약한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 모두가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시장 내에서 전기난로, 장판 등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금해야 한다.

LPG 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이상 유무를 점검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기시설을 합부로 설치하

나 무질서한 전기배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시키는 안전의식이 변화돼야 한다.

둘째, 소화설비 설치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화기 설치와 내용 연수 확인·교체, 비상소화전환 관찰, 소방호스 정비, 화재탐지 자동설비, 비상조명, 가스용기 관리, 차단기·경보기 설치 여부, 누전차단기, 배전판 등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시장통로 내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장애물 이동·제거해야 한다.

셋째, 정기적인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초기 진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꾸준한 교육과 자율 소방대 조직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항상 유지하고 소방시설 사용 요령 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넷째, 시장 내의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 초기 출동 시 시장 내 도로의 소방차 진입이 가능토록 장애물을 없애고 수시 점검해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화재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공제 가입률이 저조하다'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받지 못한 점포가 85%에 달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21.6%로 낮은 수준이다.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서와 지자체는 화재공제 가입 조례 제정과 화재보험 가입 홍보에 나서야 한다. 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를 진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고 전통시장 관계인들도 안전이 최고의 투자라는 생각을 갖고 방화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통시장의 관계자와 소방서가 함께 노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이 넘치는 민남의 장이 되길 바란다.

社 說

한빛원전 안전 이상없나

영광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구멍)이 무려 278개에 달하면서 그 원인과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생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받은 '원전 격납건물 공극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격납건물 공극이 295개에 달했다. 격납건물은 원자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벽이다. 앞서 8월 31일 기준으로 원전 8곳에서 245개 공극이 발견됐다. 하지만 최근 조사를 통해 50개의 공극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 가운데 94%가 영광 한빛원전에서 발견됐다. 한빛원전은 1호기 14개, 2호기 18개, 3호기 124개, 4호기 121개, 6호기 1개 등 총 278개의 공극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3호기와 4호기의 격납건물에서 다수의 공극이 발견된 것은 시공 당시 부실

공사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극 발생 원인이 건설 당시 콘크리트 다짐 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7월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깊이 157cm의 대형 공극이 발견된 한빛원전 4호기는 대표적인 부실시공 사례로 꼽힌다. 대형 공극이 발견된 부분의 콘크리트 벽 두께가 167.6cm인 점을 감안했을 때 공극이 가장 깊은 부분은 약 10cm정도의 두께만 남고 내부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9~1995년에 건설된 4호기 격납건물은 당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상업운전은 1996년 시작했다. 23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았던 심각한 부실공사 흔적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점검 진행 사항과 정비결과를 지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원전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반)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경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학교폭력은 범죄행위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에는 모든 국민이 분개하였으며 언론, 방송할 것 없이 연일 특종처럼 학교폭력에 관련해 집중 조명하였다.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학교폭력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아니 더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SNS(휴대폰 등) 이용한 학교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에서 때로 카카오톡을 보낸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왕따의 또다른 변종의 종류를 알아보면 단체 채팅방 등에 피해대상을 초대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때가, 그리고 피해대상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감옥, 단체방에 피해대상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으로 크게 나눈다. 이런 행위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초대하면 자동으로, 계속 단체 카톡방에 입

장된다. 그러므로 원치 않으면 거절 또는 카톡방에 입장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기능이 추가되어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이 사소한 장난일 수 있지만 정작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학교폭력이 다른 삶을 빼앗아 가는 범죄행위를 명심해야 한다. 학교가 언제부터든 서로의 경쟁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고 갈등을 풀이하는 배움의 과정으로 인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빠르게 문명과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위해 먼저 출선수범하고 친구간 갈등이 표출될 때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아름다운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할 때이다. 조현웅 / 순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